

II

조사 개요

1. 중고령자의 금융역량

구체적으로 중고령자가 갖추어야 하는 금융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중고령자 또는 은퇴 고령자의 금융역량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가. 금융감독원 은퇴기 재무관리

금융감독원(2020)은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시리즈를 발간하였는데, 은퇴기를 다룬 5권에서는 은퇴기 재무관리를 은퇴기 재무설계, 노후 주거, 노후 의료비, 상속 및 증여 등 생애 마무리의 내용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 은퇴기의 금융관리 5원칙

원칙	내용
은퇴 후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무설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산·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자산 수익률 제고 및 부채 부담 최소화은퇴 후 감소하는 수입에 대비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비상지출을 구분하여 자금 관리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국가 지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은퇴 후 소득원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며,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가 지원 여부 확인
건강관리를 잘하고 노후의료비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낙상 등 노년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걷기, 계단 이용 등 일상 속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수명 관리 필요보험 등을 활용한 의료비 준비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
금융사기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증가하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기 유형, 예방법, 피해 대처요령에 대한 사전 학습정보통신 발달로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노후자금 보호를 위한 각별한 주의 요구

〈표 II-1〉 계속

원칙	내용
상속 및 증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사전 준비가 중요함 •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담부 증여 등 자산 형태에 맞는 절세 방안 검토

주: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의미,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자료: 금융감독원(2022)을 요약

나. 영국 MAS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는 실무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은퇴 고령자(OPIR: Older People in Retirement)가 흔히 부딪치는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융역량 요소들을 〈표 II-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2〉 OPIR 성과와 관련 요소

구분	내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환경 변화나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는 고령소비자의 일상적인 소득 및 지출 관리를 요함 • 예산 수립 등 재무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에 초점
은퇴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고령자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저축으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은퇴 전환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하며, 고령자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득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지원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령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인식,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지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
남은 생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필요와 환경은 은퇴 후 지속적으로 변화함 • 자문을 구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에 대비하는 계획 수립 등
소득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고령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극대화하지 못함 • 고령자의 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

〈표 II-2〉 계속

구분	내용
주거 및 돌봄 비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주거 환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가 없더라도, 저소득 고령자는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주거 및 돌봄에 대한 재무적 측면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
사기, 착취,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일상적인 자산 관리 능력이 감소하면,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짐 • 특히 고령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은 피해를 입을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음 • 사기, 착취 또는 학대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결과를 포함

자료: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고령자 금융역량 성과 체계(The Financial Capability Outcomes Framework for Older People)를 만들었는데, 동 체계는 금융역량의 구성 요소를 크게 후생(Wellbeing), 행동(Behavior), 태도(Mindset), 능력(Ability)으로 나누고, 각 요소별로 해당하는 금융역량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문항과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성과를 제시한다. 이 중 태도나 능력 관련 항목들은 금융역량 강화 제도 도입 직후 측정 가능한 반면, 행동과 금융후생 관련 항목들은 제도 도입 후 3개월 이상, 이상적으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II-3〉 OPIR 금융역량 성과 체계

구분	일상적인 자금 관리	전반적 성과	생애사건 대비
금융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내에서 생활 • 재무에 대해 만족하고 불안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을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함 • 돌보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이 금융후생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사건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음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세우고 재무를 관리 •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과 돈을 최대한 활용 • 신용대출 관리 • 조언이나 공인된 금융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사건에 대비한 계획을 세움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표 II-3〉 계속

	일상적인 자금 관리	전반적 성과	생애사건 대비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관리를 자신감 있게 수행함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낌 절약하기 위해 비교 쇼핑에 적극적임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저축 및 소비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태도 사기범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 재무 조언이나 공인된 금융전문자와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인 생애사건의 위험을 고려함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음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재무 관리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관리를 위한 디지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 조언 및 금융전문자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인식

자료: The Tavistock Institute, TSIP et al.(2017)

다. 미국 ACFS의 은퇴소득이해력 조사

한편, 미국 ACFS(American College of Financial Services)는 중고령자가 최적의 은퇴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은퇴소득이해력 조사(Retirement Income Literacy Study)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50세~7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조사(제4차 조사)에는 총 3,765명 응답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연금상품(Annuities), 주거, 인플레이션, 투자, 생명보험,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소득보장연금, 은퇴계획, 세금, 은퇴소득, 기대여명 등을 포함한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정답률은 31%였고, 평균 정답률보다 점수가 낮은 영역은 세금, 은퇴소득, 기대여명, 장기요양, 투자, 연금상품 관련 영역이었다.

2. 설문 구성

가. 금융지식

1) 기본 금융이해력

먼저 일반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Big 3 질문, 즉 이자율 및 복리, 물가상승률, 분산 투자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과 이자 간의 관계, 대출에서의 복리 개념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Stanford대학의 Lusardi 교수와 Pennsylvania 대학의 Mitchell 교수가 기본적인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ig 3 질문은 2004년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설문 문항 중 금융이해력과 은퇴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투자교육재단이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추가되었고, American Life Panel, Survey of Consumer Finances, Understanding America Study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¹²⁾

2) 중고령자 관련 금융이해력

다음으로 중고령자에게 조금 더 특화된 질문으로서 퇴직연금 수령 및 세금 관련 문항과 노인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문항, 전기통신금융사기나 투자사기에 대한 취약성을 진단하는 문항, 그리고 주관적인 재무능력 평가와 디지털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수령 시 수령 형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퇴직연금 방법에 따른 세금 관련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후 생애에서 중요한 지출을 차지하게 되는 노년기 의료비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¹³⁾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등급을 판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급자에게 보낸다. 수급자는 장기

12) Stanford Initiative for Financial Decision-Making 홈페이지

1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요양인정서에 나온 등급과 유효기간, 그리고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적힌 서비스 종류와 내 용을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한 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돈 관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주거비용, 노인 돌봄비용, 기초연금 신청, 은행 계좌 잔액 확인, 가격 비교 사이트 사용, 금융상품 비교, 복지혜택 확 인, 세금 납부 점검 등 세부 항목별로 질의하였다. 세부 항목은 영국 MAS(Money Advice Service)의 OPIR 성과와 관련 요소를 참고하였는데,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관리 능력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 금융행동

1) 장단기 재무계획

단기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신용카드 이용 대금은 잘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나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나 장래비용, 주 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부채 상황,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MAS의 OPIR 성과 관련 요소 중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과 관련된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는 재산을 맡 긴 사람(위탁자)의 뜻과 계약에 따라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제도에 대해 질의한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신탁상품으로는 특정금전 신탁, 재산 신탁, 유언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후 견 신탁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형 신탁이 주를 이루었다 면, 최근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운용형 신탁의 주요 수요 집단이 고소득층이었다면, 최 근 들어 중산층 소비자들의 관리형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⁴⁾ 앞으

14) 서울경제(2025. 7. 1.) “美처럼 ‘생전 상속설계’는다…유언대용신탁 2년새 58% 증가”; 매일경제(2025. 7. 21.) “‘상속 골치아픈데 은행에 맡기자’…5060 중산층도 ‘유언신탁’”

로 신탁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주로 어떤 목적의 수요가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이은영 외(2025)의 신탁 설정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였다.

2) 금융자문

저축, 투자, 세금, 보험 주택담보대출, 연금, 복지혜택 등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주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지, 만족도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은퇴기 재무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면 및 전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그림 II-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노후 재무설계

The screenshot shows the '노후 재무설계' (Post-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page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tegrated Pension Portal. The page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various service categories, a sidebar menu, and a main content area.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노후 필요자금 진단' (Post-retirement Need Assessment) form with fields for gender, age, and monthly pension amount, and a '노후 필요자금 계산' (Post-retirement Need Assessment Calculation) button. Below the form are two '연금 상품 추가가입 알아보기' (Learn More About Adding Pension Products) buttons for '연금저축 상품조회' (Pension Savings Product Search) and '퇴직연금 상품조회' (Pension Withdrawal Product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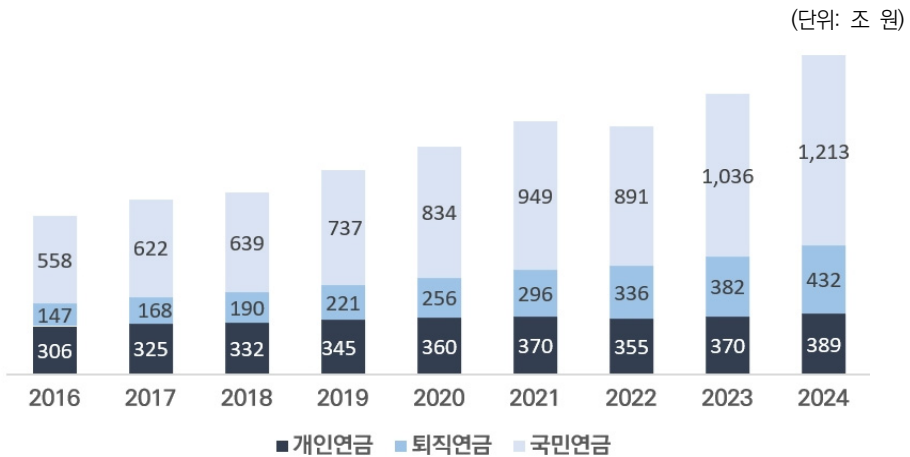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자문서비스

3)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인출 행동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은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금적립금을 보면 약 2,033조 원의 공·사연금 적립금 중 국민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7%, 퇴직연금 적립금이 21.2%, 개인연금 적립금이 19.1%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법정 연령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정해지고 수령방법도 연금 방식만 가능하고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가가 기금을 운용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 수령 방법, 인출 가능 여부, 운용 방법 결정에서도 가입자의 결정의 폭이 크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방법도 세제혜택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연금과 일시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인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한다.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경우, 가입자가 수령 개시 연령과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흐름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II-2〉 공·사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자료실

먼저 응답자에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이나 인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금으로 수령했는지,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는지, 수령 당시 총 적립금 규모, 수령 금액, 수령 시기, 연금 적립금 인출을 결정할 때 고려한 사항들, 인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설문 문항은 영국 Financial Lives Survey 중 연금 인출기 관련 모듈을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4)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한편 디지털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고령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소외 현상이 부각되었는데,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 잔액 확인, 이체, 간편결제, 비대면 금융상품 구매, 신용등급 조회, 소비내역 확인이나 자산 관리를 이용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다. 금융후생

먼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재무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금융후생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 해당 문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질의한다. 금융후생 관련 문장들은 미국 CFPB(2015)의 금융후생(Financial Well-Being) 지표를 위한 질문들에 바탕을 둔다.

다음으로 은퇴 상태는 돈 버는 일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상태로 정의한 은퇴,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 한 상태, 주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구분하였다. 먼저, 은퇴한 소비자에게는 생활비 충당 정도, 가구의 주된 소득원, 은퇴 전 가구 월 소득 대비 현재 가구 월 소득, 현재 가구 월 생활비를 질의한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소비자로부터는 예상 은퇴 연령, 예상 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상황을 조사한다.

금융부채 보유 여부, 부채의 규모, 부채에 대한 부담, 부채 상환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다.

라. 응답자 특성

먼저 응답자의 위험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독일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나 유럽 GPS(The Global Preferences Survey)의 일반 위험 성향(General Risk Attitude) 질문

과 금융 관련 의사결정 시 위험 성향을 조사한다.¹⁵⁾ 아울러 확실한 보상을 해 주는 쿠폰과 확률에 따라 다른 금액을 주는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통해 위험 선호도(Risk Preference)를 측정한다. 동 문항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문항은 현금 10만 원과 즉석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참고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복권'은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나 사행성 등 부정적 감정을 떠올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조사에서는 10만 원을 주는 쿠폰과 확률에 따라 다른 금액을 주는 쿠폰을 선택하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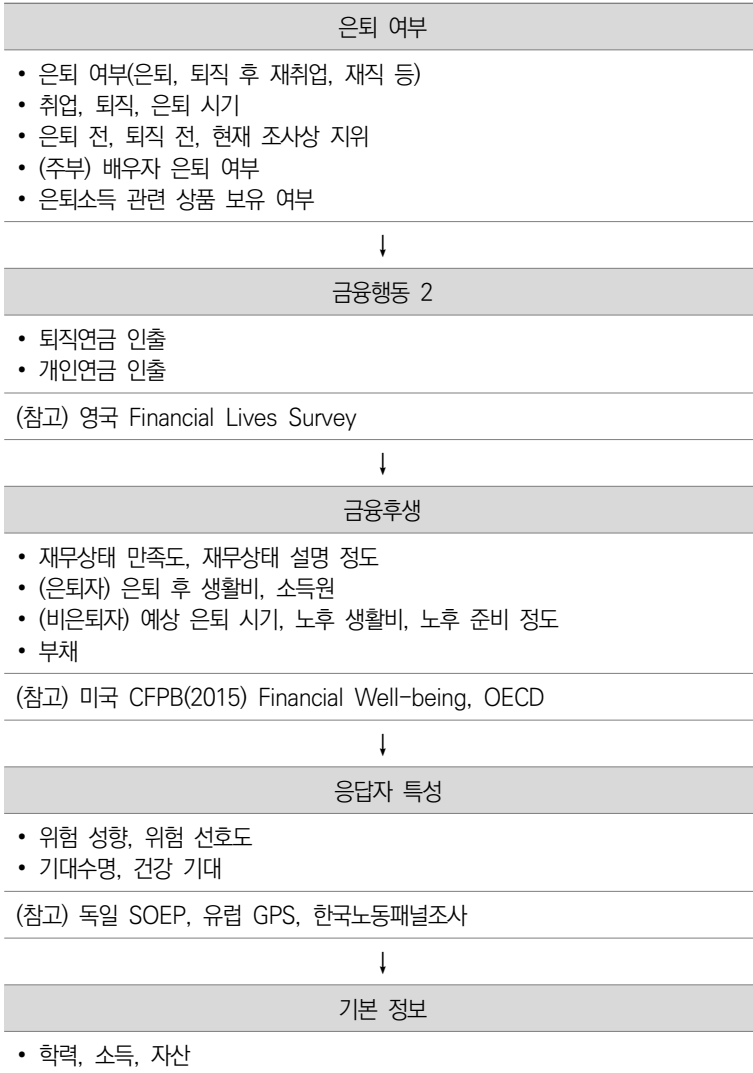
또한 기대 여명이나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해지는 시기, 치매 발병 가능성 등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예상하는 수명과 건강 상태, 시점을 함께 조사한다.

〈그림 II-3〉 설문 구성



15) “귀하는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시는 편이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는 편이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함. 위험태도를 측정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는 오병국 외(2024)를 참고함

〈그림 II-3〉 계속



3. 조사방법 및 표본 특성

동 조사는 전국 만 55~7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는 관련 법령, 연구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

의하며, 중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와 노후생활을 조사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지원 정책을 연구한 장지연(2000)은 노동시장 정책 대상이 되는 중고령자를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보았으며, 고령자를 55세 이상 인구로, 중고령자 또는 고연령자를 50세 이상 인구로 지칭하였다. 동 조사는 은퇴 직전 또는 은퇴기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고, 조사 대상을 55세~79세로 하였다.

표본은 2025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를 활용하여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조사는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표 II-4〉 조사 방법

구분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전국 55~79세 성인 남녀
표본 크기	총 3,000명(유효표본)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법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1%
조사 기간	2025년 7월 31일~8월 23일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표 II-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전체	3,000	100.0	-	
성별	남성	1,470	49.0	48.2
	여성	1,530	51.0	51.8

〈표 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연령	55~59세	832	27.7	28.9
	60~64세	799	26.6	26.8
	65~69세	719	24.0	18.9
	70~79세	650	21.7	25.4
거주 지역	서울	514	17.1	18.1
	부산/울산/경남	489	16.3	16.5
	대구/경북	323	10.8	11.0
	인천/경기	949	31.6	28.4
	광주/전라	312	10.4	10.7
	대전/세종/충청	309	10.3	10.6
	강원/제주	104	3.5	4.7
은퇴 여부	은퇴함	993	33.1	-
	퇴직 후, 재취업	633	21.1	-
	은퇴하지 않음	876	29.2	-
	해당 없음	498	16.6	-
혼인 상태	미혼	136	4.5	3.3
	기혼	2,379	79.3	74.6
	별거 중	28	0.9	-
	이혼	227	7.6	9.0
	사별	203	6.8	13.1
	무응답	27	0.9	-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	90	3.0	34.9
	고등학교	868	28.9	43.7
	대학교	1,646	54.9	17.8
	대학원	396	13.2	3.6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100만 원 미만	413	13.8	-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91	19.7	-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14	20.5	-

〈표 II-5〉 계속

구분		응답자 수	비율(표본)	비율(인구총조사)
월평균 개인소득 (세후)	300만 원~400만 원 미만	491	16.4	-
	400만 원~500만 원 미만	327	10.9	-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98	6.6	-
	600만 원~700만 원 미만	113	3.8	-
	700만 원~800만 원 미만	100	3.3	-
	800만 원 이상	153	5.1	-
총자산 (개인)	1억 원 미만	606	20.2	-
	1억 원~3억 원 미만	680	22.7	-
	3억 원~5억 원 미만	402	13.4	-
	5억 원~10억 원 미만	620	20.7	-
	10억 원 이상	692	23.1	-

주: 통계청 비율 중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은 2024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통계표(DT_1MR2060)-55세 ~79세」 자료로,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인구총조사-표본(20%) 부문(2020)-통계표(혼인상태: DT_1PM2002, 최종학력: DT_1PM2001)-55세~79세」 자료를 기초로 계산함(2025. 9. 22. 검색)

〈표 II-5〉는 응답자 특성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가장 오른쪽 열 중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비율은 2024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55~79세)를, 혼인상태, 최종학력 비율은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20%) 자료(표본조사로서 최신 조사)를 기초로 계산하였다.

혼인상태를 보면, 표본의 미혼 비율이 인구총조사에 기초한 미혼 비율에 비해 높았고, 표본의 기혼 및 별거 중인 비율도 인구총조사 결과의 기혼(별거 포함) 비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이혼 비율과 사별 비율은 인구총조사 결과에 비해 낮았다. 다른 분포에 비해 최종학력의 분포도 표본과 전체 인구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표본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율이 68.1%였으나,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은 21.4% 수준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은 전체 평균적인 인구의 교육 수준에 비해 높았다.